

■하버드 다룬 다큐 '베리타스...' 제작 광주 출신 신은정씨

“하버드大 이면 통해 엘리트 위주 우리교육 화두 던지고 싶었죠”



11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서 무료 상영회

하버드 대학은 단순히 미국의 한 대학이 아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막강한 집단이다.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버드 대학은 최고 지성의 상징이자, 성공한 인생의 표상으로 꼽힌다.

하버드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모습에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 다큐멘터리 '베리타스, 하버드 그들의 진실'이 눈길을 끈다. 작품을 만든 이는 광주 출신 여성 다큐 감독 신은정(40)씨다.

KBC와 광주 KBS에서 방송작가로, 광주인권영화제 기획자로 활동하다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신씨는 지난 1년간 하버드 대학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을 섭렵하고,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촬영과 편집, 번역 작업 등 거쳐 완성작을 내놓았다. 영화 제목에 쓰인 '베리타스'는 하버드를 상징하는 문장(紋章), 라틴어로 '진리', '진실'을 뜻한다.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서 열리는 무료 상영회가 대중과 만나는 첫 자리다. 한국인이 하버드 대학의 이면을 영글에 담은 건 조금 독특한 일. 신씨는 지난 2001년 5·18 전야제 관련 영상물을 제작하다 당시 광주민중항쟁을 연구하기 위해 전남대 5·18연구소에 머물고 있던 남편 조지 카치차파카스(웬트워스 공과대학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를 처음 만났다.

2004년 결혼 후 이듬해 미국으로 건너간 신씨는 남편이 하버드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로 머물게 되면서 하버드에서 영어 수업을 받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점차 '하버드'의 존재에 관심을 갖게 됐다.

“시사프로그램 작가를 오래해서 인지 어떤 사안들에 대한 이면에 관심이 많아요. 하버드가 어떻게 전 세계에 이 정도의 파워를 발휘하는 걸까 궁금해서 그 원인들이 직접 찾아보자는 생각이었죠.”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다. 다큐 감독 최성욱(37)씨와 함께 도청 별관 문제를 다룬 '기억하기 위하여'를 만들고 여러 참여자들과 함께 했던 대인예술시장의 '프로젝트 NO.5' 기획을 진행하는 등 공동 작업만 해온 터라 약간 긴장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미국'적인 소재로 작업을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관심 있는 주제였기에 직접 부딪쳐보자는 생각.

수많은 자료와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한 후 첫 테스트 촬영을 시작한 게 지난해 4월. 이후 그녀는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를 비롯해 하버드 메디컬 스쿨 리처드 레빈스 교수 등 20여명의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공부하면서 90년대식 러시아 경제 개혁 과정에 하버드가 개입해 러시아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었던 사건 등 하버드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에 주목했다.

특히 “엘리트 대학에 진학을 하면 어떤 것들은 말해서도 안된다든 암묵적인 합의를 심어주게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젊은이들의 세뇌시키는 기능이다”는 노엄 촘스키의 말은 그녀에게 인상적이었다.

당초에는 영어로만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국내에서 상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한국어 번역작업을 시작했다. 두달전 광주로 돌아와 촬영 등에 도움을 줬던 최성욱 감독과 더빙, 자막 작업 등 후반작업을 마치고 완성품을

만들었다.

“이 작품을 통해 고등교육의 목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하버드에서 시작되면 그건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는 서구 것들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알게 모르게 갖게 되잖아요. 하버드에 대해서도 너무 일방적인 우월성만 강조되는 것 같아, 그 이면에 감춰진 문제들을 들춰내 하버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게 명문대학, 엘리트 교육에 집착하는 우리 교육을 생각해볼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았을 거구요.”

신씨의 다큐는 오는 20일에는 제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26일에는 서울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며 미국 커뮤니티와 대학 상영, 해외영화제 참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가 원래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감춰진 역사에, 언제 작업을 시작할 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작품을 꼭 만들고 싶어요.” 신씨는 꾸준히 세상이 다양한 궁금증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제공=최성욱 감독



노엄 촘스키와 인터뷰중인 신은정씨.

동무생각... 추억을 부르는 시간

광주전남 우리가곡 부르기 13일 호남신학대

광주전남 우리가곡 부르기 5월 행사가 13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학교 카페 티브라운에서 열린다.

새로운 노래를 함께 배우보는 코너는 남도작곡가협회 장 이만수 작곡가의 노래로 꾸었다. 특히 이번 무대는 피아노 반주와 함께 대금(채광자), 해금(김유라) 등 국악기가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더한다.

김계윤씨의 시에 곡을 부친 '월출산 안개' '배고픈 다리'와 '바람의 섬' '봄 오는 길' 등 이만수씨의 곡을 함께 배우며 바리톤 김홍석씨가 특별 무대를 마련했다.

또 '동무생각' '님이 오시는지' '저 구름 흘러가는 곳' '그대 있음에' 등 친숙한 가곡들을 함께 불러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만수)

그밖에 테너 박진영씨와 소프라노 차고은씨의 무대도 준비됐다.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 함께 모여 아름다운 노랫말과 멜로디의 가곡을 함께 즐기는 모임이다. 회비 1만원을 내면 간단한 먹을거리와 차도 즐길 수 있다. 6월 음악회는 6월 10일 소프라노 윤은주씨를 초청해 진행한다. 문의 016-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리알로 그랬네 자연의 아름다움

안길원展 12~18일 광주메트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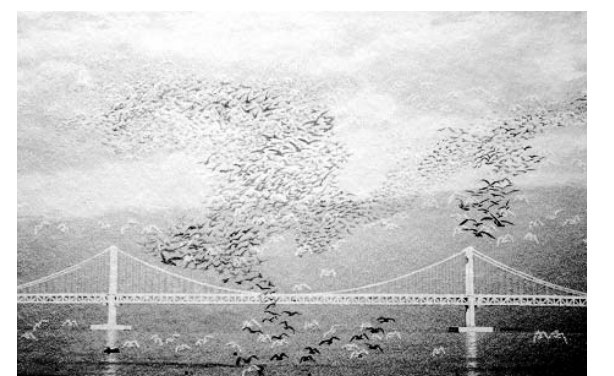
돌과 식물에서 얻은 재료로 싱그러운 바다 풍경을 선사하고 있는 안길원씨가 오는 12~18일 광주메트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유리알, 원석의 분말, 분체, 식물에서 얻어낸 다양한 색으로 완성한 100호부터 500호에 이르는 대작들을 선보인다.

밝고 화려한 색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형상화했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냈다.

그는 서라벌예대를 나온 뒤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했으며 22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222-805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안대교'

대중에게 다가선 문화·예술 교양강좌

■제13기 광주문화아카데미 일정

Table with columns: 강좌명, 강사, 일시, 장소. Lists various cultural courses like '연극이야기', '근대미술의 이해', '고은의 만인보' etc.

작가회의 주관 광주문화아카데미

고은 등 초청 11월까지 9개 강좌

대중에게 한발 다가선 문화·예술 교양강좌로 주목을 끈 '광주문화아카데미'가 올해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시민들을 찾는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경운)는 5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의 강좌를 광주시 북구 평생문화학습센터 2층 공연장 등지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일정표 참조)

이번 강좌에는 고은(78) 시인, 강태기(65) 한국연극배우협회장,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클래식 전문강사로 인기가 높은 조윤범(36)씨, 미술사가 이태호(59·명지대 교수) 씨 등 대중적인 인사들이 대거 초청됐다.

12월 첫 강좌는 70년대 '에쿠우스'로 유명한 연극배우 강태기씨가 '연극이야기-이해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고은 시인은 7월 7일 '만인보, 그가 만난 우리 현대사'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며 배대순(81) 시인과 소설가 은미희

(51)씨는 각각 무등산 옛길구간과 중의공원 일대에서 '자가와 무등산 옛길을 걷다'와 '이야기가 있는 산책'이라는 주제로 야외강좌를 연다. 특별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22일 순천탄 일대 문화답사여행도 마련했다. 문의 062-523-783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복돼지 공인중개사사무소' (Piggy Bank Real Estate Agency)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New Real Estate Agents - Rental Specialist)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산공인중개사' (Ginsan Real Estate Agency)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Daedong Real Estate Agency)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세정공인중개사' (Sejeong Real Estate Agency)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